

# 사설

## 이웃종교의 봉축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은 예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즐거움이 더했다. 이웃종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때문이다. 개신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김동완 목사가 공식 축하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내왔고, 천주교에서도 로마교황청을 비롯해 정진석 서울대교과장과 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신부의 축하메시지도 날아왔다. 또한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초과일을 맞아 밤어사를 방문하는가 하면, 밤어사 주지스님 역시 크리스마스 성당에 방문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에도 간헐적으로 이웃종교인들의 개인적인 축하의 뜻이 전달된 적은 있지만 올해처럼 공식적인 축하메시지가 불꽃처럼 쏟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실로 반갑만한 일이다. 이제 사찰에서 강의하는 신부님과 목사님을 보는 일이나,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보는 일은 낯설지 않다.

교회협의회 김 총무는 메시지에서 "석가모니의 삶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세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공동의 선을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진석 교구장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진선미의 조화 속에 올바른 삶을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하나같이 밝은 사회를 위한 종교간 협력을 당부하고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내용들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평화방송 인터넷에 출연해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적 행동양식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사찰방하나 학교 내 단군상 파괴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정부나 언론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시피 했지만, 뜻있는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던 바였다. 그러한 독선과 배타적 자세는 우리의 공동선 추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으며, 자기 종교의 가르침에도 역행하는 일임이 분명했다. 아직도 일부 종교인들이 공격적 자세에서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하고 이웃종교에 대한 무지와 무례를 서슴지 않는 일을 볼 때 씁쓸함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다수의 종교인들은 다원성 있게 예수와 석가의 가르침의 본질에 눈뜨기 시작했다. 이제 상생의 정신으로 협력하여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동안 방기했던 종교인들의 역할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다.

## 불교의 사회참여

불교가 현대 사회에 힘있는 종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참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식있는 불자라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조계종 종단도 '불교의 사회화'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사회참여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이러한 인식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아직도 불교의 사회참여, 특히 종단 차원의 사회참여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4일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봉축 세미나에서 윤원철 교수가 불교의 사회참여를 한국 불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한국불교의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불교가 따로 있고 사회참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남, 나와 중생을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귀결이며 중생의 삶에 터전을 삼고 밝히는 운동이야말로 자비행의 궁극이다. 사회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불교의 근본인 지혜와 자비가 실종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불교라면 허구의 세계에 불교도를 그리고 있는 죽은 종교에 불과할 것이기 때

문이다. 하루빨리 아직도 먼 이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불교도 건설의 원력을 우리 현실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 지금의 사회 현실을 바꾸어 나갈 구체적인 이상을 불교를 통해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불교도 건설의 여정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타종교에 비하여도 교리적으로도 역사적 전통으로 보아도 환경운동, 통일운동, 문화운동 등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는 영역들에 대하여 가장 수완한 대안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불교도와 연결시키는 큰 원력으로 힘찬 신행을 일으키는 일 뿐이다.

종단은 이러한 큰 이상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사회참여의 불교적 뿌리를 제공하고, 불교시민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가 불교의 본분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불교시민단체와 그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큰 이상을 공유하는 바탕 위에 특성화와 전문화를 이룩하여 불교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사회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 봉축행사 다양했지만 독창성 부족

○...지난해 조계종 사태 이후 도심 사찰신도들의 법회 참여율이 많게는 50%까지 격감하는 등 불자들의 자괴감이 점차 심화되고,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돼 올해 연등축제는 썰렁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조계사 등 각 사찰에 달린 등과 참석인원도 지난해보다 많다고 알려져 IMF이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봉축위원회는 이번 연등축제를 '시민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 '전통의 멋과 흥이 넘치는 신명나는 등(燈)의 잔치'를 꾸민다는 계획이었다. 줄타기 공연, 굿, 연꽃등·전통등 만들기, 서각, 장승만들기 시연, 전통사찰음식 시식 등이 모두 그 일환에서 마련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연등축제가 서울시 지정 특성문화행사로 지정되고 더 나아가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앞두고 세계적인 축제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봉축행사는 외국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것 같다. 실제 외국인 등산객들 대회에는 백여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하는 등 외국인들 불교 문화 체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행사 내용을 영어로 소개해 외국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27일간의 봉축기간(4월15일~5월11일)동안 전국 불교계에서 펼쳐졌다. 특히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처럼 자비행을 나누는 복지관련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잡았고, 불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사찰 단위의 이벤트 행사가 많아 일반인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또 가톨릭 개신교계가 봉축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정명주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밤어사를 첫 방문하는 등 종교간 화합무드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조성돼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기자들의 발달을 통해 올해 봉축 행사를 결산한다.

게기가 됐다. 이번 인터넷 생중계를 토대로 전세계 불교정보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메라가 적어서인지 화면 구성이 매우 단조로웠고 다양한 장소의 표정을 담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우리 것', '불교 것'의 개발이 없었다. 봉축기간동안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지만 독자적인 불교문화는 없었던 것 같다. 시쳇말로 무늬만 우리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 외국인 외국인 하더라도 정작 행사의 주역이 돼야 할 불자들은 뒤에 앉아 구경꾼으로만 머물거나, 배운노릇을 하는데 그치지 않았는지, 우리가 먼저 신명이 날 때 구경꾼들도 덩달아 덩실거릴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찾는 일이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것은 봉축위원회만의 일이 아니

|          |        |        |        |        |
|----------|--------|--------|--------|--------|
| 기자<br>방담 | 정성운 차장 | 김원우 기자 | 한영우 기자 | 김재경 기자 |
|          | 김종근 기자 | 도필선 기자 | 이은자 기자 | 오종욱 기자 |
|          | 이윤호 기자 | 천미희 기자 | 김주익 기자 | 강지연 기자 |

석대법회'에는 각각 수천명의 사람들이 몰려 정만 '아담법석'을 이루었다. 초과일이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즐겨워하고 보람을 얻는 문화행위의 장이 될수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내년에는 더욱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통등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열어 사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봉축



연등축제에 개최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는 청소년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주요했다. 다음 봉축행사에는 젊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이고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 전통등 경연 응모작 30여점 '아쉬움'

### 인터넷TV로 전세계 5시간 생중계

###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장

인들을 배려한 부분은 연등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시키는데 밑거름이 됐다.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법패 시연 화려한가 중요무형문화재 김대근씨의 줄타기 공연 때 영어로 간단한 소개를 덧붙여 외국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불자와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선보였다는 것도 봉축행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각종 문화공연도 예년에 비해 수준 높아 감탄을 받았다. 국립극장에서 열린 음악극 '오! 진감'을 비롯, '원성스님의 그림자' 못다한 이야기', '불교 예술의 미 천년회상, 천년상상' 등 전통 불교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현대적으로 조명된 공연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들이 불교계 자체역량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 들어 사찰을 중심으로 소규모 음악회, 전시회 등도 잇따라 열려 신도들에게 불교문화를 향유케 한 점은 반가운 현상이다. 또 부처님 오신날 당일 열린 봉사의 야간거리 축제나 길상사 음악회, 안동 봉경사의 '아담법

위원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30여점에 불과한 점은 아쉽다. 봉축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연대회를 알리지 못한 것이 참여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사찰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불교NGO들이 마련한 다양한 인권 관련 행사도 봉축행사의 특징이었다. 한국 JIS는 북한동포를 비롯해 몽골, 이디오피아 난민의 실상을 알리며 시민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불교기아도 움기구는 터키, 르완다, 모잠비크 등의 실상을 상세히 알렸다. 특히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비전향장기수의 복송을 촉구하는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를 열어 5백여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바야흐로 만인의 광등과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의 인권사상이 사회속에 투영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거리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댄스 경연대회'는 봉축프로그램 중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5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의 팀 이름을 플랭카드로 적어가지고 나와 열띤 응원을 벌이는 등 봉축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봉축프로그램도 이전 끊어져

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갈 청소년과 청년불자들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 앞서 여울림마당을 2시간 동안 중국 국악관현악단의 공연, 그윽발 발표 등으로 진행했는데 지루했다. 엠프시일이 좋지 않아 의사진달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지루함의 원인이다. 관중석에 앉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뜨기 일쑤였고, 연희단은 피곤에 지쳤는지 행사 도중 잠을 자기도 했다. 다음에는 1시간으로 압축하면 좋겠다. 연희단의 확대, 아기부처님 이운 및 관불은 올해 처음 도입한 의식인데, 법회를 더욱 장엄하게 해줬다. 그런데 '삼귀의'를 왜 '귀의불 양축 존...' 하는 한문구로 했는지 의아하다. 동참한 수만의 재가불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봉축의 무심한 처사였다.

○...올해 연등축제는 최초로 불교 인터넷TV를 통해 전세계 불자들에게 5시간 동안 생중계 됐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좋은 기획이라는 평이다. 연등축제가 불교계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다. 우리 것, 불교 것을 알고 즐길 줄 아는 일은 불자들 모두의 몫이다. 더불어 독자적이고 독자적인 불교문화를 생산하기 위한 민족학자, 행사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운영을 제안한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대부분, 공식 용어인 '부처님오신날' 대신 '석가탄신일' '석탄일' '불탄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몇년 전 종단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써 줄 것을 협조바라는 공문을 방송 및 신문사에 발송한 적이 있다. 내년에는 미리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철저한 홍보를 통해 매스컴에서 '부처님오신날'로 통일했으면 한다.

○...이번 연등축제 때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불교문화 체험의 장이 마련된 우정국로에는 쓰레기가 넘쳐났다. 거리뿐 아니라 행사를 마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장에도 쓰레기가 마구 나뒹굴어 민망했다. 한 외국인은 바람에 날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쓰레기를 주우며 주위를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연등축제가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시점에 있는 만큼 행사의 주인공인 불자들의 질서외도 높여져야 하지 않을까. 정리=도필선 기자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1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         |   |
|---------|---|
| 1. 강의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여름반)   |
| 2. 교육장소 | 동산반야회(안국동 토라리)  |
| 3. 개강일시 | 2000년 6월 7일(수) 오후 7시  |
| 4. 교과목  |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
| 5. 지도법사 | 김재일 법사  |
| 6. 교재   |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
| 7. 입학금  | 30,000원(반영함량 사진2매)  |
| 8. 지원자격 | 제한없음  |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신간 대조 한글역**

**범본 極樂莊嚴經**

(아미타경 무량수경)

◆ 최봉수 편찬  
◆ 가격 20,000원

○ 아미타불의 48대 원력의 생생한 가르침 및 극락세계의 정도 장엄과 왕생도를 실현 무량수경이 이제 산스크리트 원전인 극락장엄경으로부터 직접 원음을 듣는다

○ 지혜의 보고인 불경이 이제는 불자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경전으로 다가오다. 일반 불자들에게는 극락왕생과 부처님의 무량광 무량수를 증득하는 수지독송경으로, 전문불자들에게는 산스크리트 원전과 한역과의 비교를 통해 좀더 심원한 정도세계를 체험하도록 편찬하였다.

○ 다년간 불교근본경전에 대한 저서를 출간한바 있는 최봉수 교수는 대승불교의 하이라이트 정도부경전인 극락장엄경을 편찬한다.

주문처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웅진갤러리 3층 ☎ 02)732-1215 FAX (02)732-1207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도불교강좌(3년과정)

**2000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도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정도법사 3년 과정의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     |  |     |  |
|-----|--|-----|--|
| 교과목 | 한국정토사·무량수경·연등집요·아미타경 관무량수경·왕생론·반주삼매경 무량수경종요·보광삼매론·미타예절법 정도미술·인도정토사·중국정토사 | 교수진 | 주명철교수(동국대)·김영미교수(이화대) 안보광수(동국대)·장휘욱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태원스님(승가대) 강동균교수(동아대)·정태희교수(동국대) 해경스님(무설장사) |
|-----|--|-----|--|

3. 모집방법 및 전형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전형방법               | 강의일시 및 장소              | 비고                                |
|-----------------------|-------------------|-------------------------------|---|--------------------|------------------------|-----------------------------------|
| 정규반(100명)<br>통신반(50명) | 불교를 적극 신행 하고자 하는자 | 입학시험통 주일등특등본 1통<br>·반영함량사진 3매 | 2000년 5월 1일~<br>2000년 6월 1일<br>입학금 150,000원 | 서류전형 (한글자<br>개별면담)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br>동산교육회관 |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br>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

4. 입학 일시 2000년 6월 1일(목) 오후 7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02)732-1217, FAX (02)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상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와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도염불법사 수여.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